

民謠와 濟州文學

金 榮 敏*

(1)

민요는 엄연한 문학이다. 따라서 제주민요는 제주문학의 한 갈래다. 민요가 문학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나 속담이 문학이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문학을 반드시 문자로써 기록된 것만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소설이나 시와 같은 기록문학, 곧 창작문학만 문학이요, 입과 귀로 전해지는 민요나 설화 따위는 문학일 수 없다는 견해를 지닐 수도 있다. 민요나 설화 따위를 문학으로 보지 않는 경향은 아직도 짙다. 말로써 전해지는 구전문학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견해인 셈이다.

기록문학과 구전문학은 물론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다. 개인의 창작이나 공동제작적 성격을 띠느냐 하는 점 등 여러가지로 다르지만, 우선 표현매체가 글이나 말이나 하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글로 쓰인 것만을 문학으로 규정한다면, 말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민요·설화 등은 문학이라 볼 수 없다. 민요·설화 등을 문학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표현매체 자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글이나 말이나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된 작품의 문학성이 중요할 뿐이다. 민요나 설화는 그 나름의 문학성을 띤다.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이야기하거나 노래하는 게 아니다. 사실의 됴됨이를 잘 살펴보면 상당수가 문학적 값어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구전문학 역시 기록문학과 마찬가지로 문학으로 보자는 관점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전문학도 문학으로 보자는 관점이 제 틀을 잡은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선 이후의 일이다. 이에 앞서 이병기·고정옥·구자균·김동욱 등의 《국문학개론》 같은 논저에서도 구전문학에 꽤 비중을 두었으나, 1970년대 이전의 한국문학사나 한국문학개론을 훑어 보더라도 대부분 구전문학을 문학의 울타리 속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대체로 기록문학의 원형을 추적하거나, 소재를 찾는 데 민요나 설화를 문제 삼았을 뿐이었다. 따라서 민요나 설화는

* 文化財 委員

그 자체의 값어치보다도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비중을 두어온 셈이다.

민요가 문학의 마루터기라는 사실은 고정옥 등에 의해서 힘써 강조되곤 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민요 분석의 대부분의 작업은 민요 사설에 담긴 사람삶의 실정이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이런저런 관점에서 살핀다든가, 어찌하여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가를 사람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과 관련시키면서 이래저래 고찰하는 데 치중하여 왔다.

따라서 민요는 문학의 마루터기라는 말은 줄곧 강조하면서도 민요 연구의 흐름이 문학외적인 분석에만 걸돌아 온 셈이다. 물론 민요와 같은 구전문학은 창작문학, 곧 기록문학과는 달리 노래의 배경을 면밀하게 살피는 작업도 절실히 필요하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어떤 동작과 더불어, 어떤 창법 어떤 가락으로 노래하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일도 특히 민요 연구에서는 필수적이다.

구원현장을 글로써 눈으로 보듯이 기록하기란 쉽지 않다. 이른바 현장론적 조사방법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듯 어렵히 기록화하는 데 정성을 기울인다. 현장론적 조사방법에 따른 획기적인 작업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전 82권)다. 《한국구비문학대계》는 마음 놓고 활용할 만한 자료로서 높은 평가를 지니고 있는 기념비적 결실이다.

한편, 민요는 다른 무엇이기에 이전에 문학이므로 문학작품으로 우선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견에서 치러진 그 이전의 작업으로는 조동일의 《서사민요연구》(계명대, 1970)를 내세울 수 있다. 이 책은 이 책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 외에도 민요사설을 우선 문학으로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다루는 게 타당한가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뜻을 지닌다.

민요를 엄연한 문학작품으로 보면서 이런저런 시각에서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주목할 만한 작업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김대행·김열규·박민일·류종목·강동학·김연갑·김무현·박경수·이창식·나승만 등의 주목할 만한 작업과 더불어, 상당수의 학위논문들도 민요 사설의 문학적 분석에 치중되어 가는 추세다(고혜경·좌혜경·한채영 등).

이제는 민요를 문학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견해로 인식된다. 민요 설화 따위를 문학이 아니거나 문학 이전의 것으로 보는 견해는 오늘날엔 설득력을 잃어 간다. 따라서 제주민요는 제주문학의 엄연한 한 갈래로서 뚜렷이 자리잡게

된다.

제주민요는 제주문학의 한 갈래이면서 비증을 들 만큼 풍부하고 빼어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제주민요가 지니는 특이성에서 온다. 제주민요의 특성은 무엇일까.

- ① 제주도에는 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된다. 특히 노동요의 종류가 상당수에 이르고, 한 가지 노동요에도 이에 따르는 사설이 유별나게 술하다.
- ② 제주민요에서는 유달리 여성노동요의 사설이 풍부하고 빼어나다.
- ③ 제주민요의 일부 사설은 그 문학적 가치가 두드러지다.

제주민요가 풍부하다든가, 노동요가 많으며, 특히 여성노동요의 사설이 풍부하고 빼어나다는 사실은 힘주어 강조할 만하다. 민요의 보물섬으로 널리 알려진 제주도에서 노동요가 워낙 많다는 사실은 부지런히 일해야만 사는 제주민의 유다른 사정을 잘 말해 준다.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여성 노동요가 흔할 뿐더러, 그 사설이 풍부하고 빼어나다는 점은 제주민요의 강점이다.

<맷돌노래>와 <해녀노래>의 예만 들더라도 이런 사실은 곧 짐작이 된다. 제주민요에서 <맷돌노래>나 <해녀노래>의 존재는 제주민요의 비증을 자리매김하는 데 육중하고 핵심적인 무게를 지닌다. 만약 제주민요에서 <맷돌노래>나 <해녀노래>가 없었다면 제주민요는 사실로 보아서 과연 드높이 기릴 만한 위상을 지닐 수 있을까.

<맷돌노래>의 사설은 거의 제주 특유의 절구인 '남방애'를 짚으면서 부르는 <방아노래>의 사설과 넘나든다. 가락은 각기 한 가지씩이지만, 이에 달리는 사설은 무려 수천 편에 이른다. 또한 그 사설에는 빼어난 게 수두룩하다. 어느 나라 어떤 노동요 한 가지에 이처럼 술하고 문학적 가치가 짙은 사설이 전해지는 예가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따른다. 첫째 제주도의 주곡은 지난날 조·보리와 잡곡이었으므로 맷돌이나 방아에서 짚고 쏘고 뿜아야 할 일거리가 술해서 사시사철 맷돌·방아질을 거의 날마다, 적어도 며칠에 한번씩 치러야 했다는 점, 맷돌·방아질은 장소를 옮기면서 거칠게 치러지는 일이 아니라 고정된 곳에서 아늑하게 치러지며, 특히 맷돌질은 가다가 두셋이 갈기도 하지마는 흔히 혼자 치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조용히 가다듬으면서 속뜻을 풀어헤쳐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점. 일하는 동작과 노래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할 까닭이 없으므로 제가 노래하고자 하는 사실을 마음을 가라앉혀서 침착하게 헤아리며 골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를 지닐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맷돌질은 집집마다 자주 치러야 했고 일하는 시간도 넉넉할 만큼 길었으므로 노래할 기회 역시 충분했다. 밥을 짓기에 편리하도록 짊어 놓은 보리쌀을 반으로 쪼개는 일을 비롯해서 콩·팥·녹두·메밀·밭벼·깨·밀 따위를 맷돌이나 제주 특유의 절구인 '남방에'에서 갈고 쏘고 찧고 뺨아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맷돌노래>나 <방아노래>의 사설 속에는 제주의 모든 것이 백과사전처럼 담겨진다. 제주의 실정 및 제주민의 삶의 모습과 제주민의 생각을 온통 그 사설로 드러낸다. 나날의 찌든 삶에서 부딪히는 온갖 고달픔과 어려움, 외로움과 서러움을 노래하는 한편, 오달진 의지와 자립정신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튼실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굳건한 마음가짐과 실정을 속속들이 드러낸다. 어머니사랑을 높깊이 기리며, 시집살이에서 부딪히는 단란한 실정을, 그리고 처첩 사이의 미묘한 갈등과 자식과 동기간의 사랑을 노래하기도 한다. 양반과 선비를 덮어놓고 부러워하기보다 평행선적으로 농어민의 자존심을 노래하기도 하고, 사람살이의 소박한 꿈과 발밑에 부딪힌 실정을 그린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철학을 드러내는가 하면, 도민의 민간신앙과 풍토를 노래하기도 한다.

요컨대 <맷돌노래>나 <방아노래>의 사설에는 제주도와 제주민의 삶이 총체적으로 거울처럼 뽕뽕그려 비쳐진다. 따라서 <맷돌노래>와 <방아노래>의 사설을 잘 이해하기만 해도 제주도가 어떠한 곳인지, 제주민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는지를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설의 문학성이 깊이 있고 뛰어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나 이 민요 사설에서는 치르는 일과 직결되지 않는, 삶 전반에 걸친 소재가 대부분이므로 사람살이를 폭넓게 노래하게 될 뿐더러 문학성도 돋보이게 된다.

치르는 노동과 관련지을 때 노동요의 사설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㉔ 함께 하는 일을 독려하면서 서로 부추기거나 일을 치러나가는 모습을 그리는 사설.
- ㉕ 치르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상적인 삶의 실정이나 심경을 노래하는 사설.

〈타작노래〉나 〈멸치 후리는 노래〉처럼 여럿이 함께 일하면서 행동통일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대체로 ㉔의 사설이 따른다. ㉔의 경우는 대부분 노동과 직결되는 사설이므로 문학성은 희박하다. 거친 일을 함께 치르는 데 열중하다가 보면 가다듬어진 사설을 부를 겨를이 없을 뿐더러, 부르는 노래의 거의가 일과 상관되는 사설들이므로 문학적 세련미를 갖추기 어렵다.

치르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사설이 대부분인 ㉕의 경우는 〈맷돌노래〉처럼 한두 사람이 호젓이 치르면서 일하는 동작과 노래가 밀착되지 않아도 괜찮으므로 일과는 전혀 상관되지 않는 사람살이의 실정이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이런저런 생각을 거리낌없이 풀어헤칠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민의 모든 것을 사실 속에 담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맷돌노래〉나 〈방아노래〉에 수천 편의 사설이 전해진다거나 문학성이 돋보이는 사설이 오랜 세월 전승되는 이유 역시 이런 여건 때문이다. 〈맷돌노래〉나 〈방아노래〉는 그 사실로 보아서 과연 한국 민요의 노다지격이다.

제주 특유의 〈해녀노래〉는 사실의 분량이나 질로 보아서 제주민요 가운데에서 〈맷돌노래〉와 〈방아노래〉 다음에 놓인다. 이 세상에 해녀가 분포된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요, 주로 노를 저으면서 본격적으로 〈해녀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제주 해녀뿐이다.

〈해녀노래〉는 가락도 어기차서 역동적이거나와 가다가 해엄치면서도 부르지만, 거의 달리는 배의 노를 저으며 부르는데도 술한 사설이 전승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배를 타고 노를 짓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주도 연안에서 어장으로 나갈 때에만 배를 타고 노를 짓는 게 아니라, 한본토 각 연안으로 물질 나갈 때에도 며칠씩 노를 저었기 때문이다. 닻새씩 열흘씩 노 저어 나갈 때도 드물지 않았다. 식량을 그득 싣고 북한까지 드나들기도 했다. 육지물질 나갈 때 몇몇이 노를 저으면서는 여러날 동안 〈해녀노래〉를 함께 불렀으니, 그 사실 수요가 많을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또한 〈해녀노래〉는 노를 짓는 동작과 노래가 썩 밀착된다. 〈해녀노래〉는 노

것은 동작에 맞추고 신명을 불러일으키는 조흥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지닌다.

따라서 노동과 관련된 ㉓ 사설이 〈해녀노래〉의 경우는 〈맷돌노래〉나 〈방아노래〉에 비하여 꽤 불어난다. 대체로 〈해녀노래〉의 사설은 노동과 관련된 ㉓ 사설과 노동과 관련 없는 ㉔ 사설이 대등하다.

그래도 〈맷돌노래〉·〈방아노래〉 다음으로 사설이 풍성하고 빼어난 것은 〈해녀노래〉다. 이리하여 사설에 치중하고 제주민요를 내다볼 때면 〈맷돌노래〉 및 〈방아노래〉와 〈해녀노래〉에 상당한 비중이 쏠린다. 이에 대한 총체적 분석은 필자의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중심으로〉(동국대 박사논문, 1983)에서 시도해 보았다. 이 논문에서 〈맷돌노래〉·〈방아노래〉와 〈해녀노래〉를 집중적으로 다룬 까닭도 사설의 분량이나 문학성이 단연 빼어나기 때문임을 환기하고 싶다.

(2)

민요는 제주문학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줄 안다.

그렇다면 그 문학성은 어떠한가. 총체적인 분석은 할 겨를이 없고, 몇가지 실례를 들며 논의할 필요를 느낀다. 제주민요의 문학성을 말할 때 즐겨 예로 들 만한 몇 편의 자료를 소개한다.

① 저산들런	난지젠 ㄱ난
짐패잘란	못지듯
부뉘공은	가프젠 ㄱ난
명이잘란	못가파라

(《濟州島民謠研究》上, 239번의 자료)

〈풀이〉 저 산 둘러	난 지려 하니
질뽕 째아서	못 지듯
부모 공은	값으려 하니
명이 째아	못 값더라

부모가 살았을 때 극진히 효도하라는 노래. 제주민과 친숙한 기생화산 오름과 짐을 짊어지는 짐패를 등장시켜 비유했다는 데 유다른 뜻이 있다.

우리는 부모를 여의고 나서야 다하지 못한 효도를 후회하게 된다는 다음 시조를 어렸을 적부터 잘 기억한다.

어버이 사라신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디나간 휘면 애^둠다 엇디^하리
 평생애 고타 못^홀 일이 잇^뿐인가 ^하노라

이 시조는 널리 알려진 정철의 〈훈민가〉. 담고 있는 뜻은 절실하지마는, 표현기교는 초보적이다. 영탄적이요 서술적인 데 머물렀고,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라고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식이다. 영탄이나 서술보다는 묘사가 훨씬 구체적이어서 실감이 나고, 설교보다는 선명한 그림처럼 사실을 제시하는 게 더욱 몸에 와 닿는다.

①의 민요는 부모 은공의 부피를 불쑥불쑥 솟은 산에 비유하고, 한정된 부모의 목숨을 짐을 지는 데 쓰일 밧줄인 짐패의 길이에 비유했으니 절묘하다.

제주민은 산과 더불어 산다. 제주도에는 우람한 한라산을 마루로 하여 3백수십에 이르는 기생화산, 곧 오름들이 은후한 곡선을 그리면서 불쑥불쑥 솟아 있다. 문 밖에 나서기만 해도 은은한 선율이 물결치는 오름들의 곡선미가 눈앞에 펼쳐진다.

높직한 산이라도 등에 짊어질 비상한 각오만은 단단하지만, 이를 짊어질 만큼의 기다란 짐패가 없다는 것. 한 없는 부모의 은공 갚음을 산을 짊어진다는 데 비유하는 발상도 놀랍거니와, 산을 짊어질 만한, 것처럼 기다란 짐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마찬가지로 부모의 은공을 갚는다 갚는다 버르지만, 부모의 목숨은 무한하게 기다려 주질 않으니 썩 애^둠다는 것이다. 도민들은 물결처럼 충계를 이루며 해안까지 불쑥불쑥 솟은 오름들과 함께 평생을 산다. 제주에서는 어디를 가나 등 뒤에 한결같이 수평선이 따르듯, 어디서든 고개를 치켜들면 접점이 솟은 오름들. 오름들은 대우주의 척추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다. 오름에서는 하늘과 교통된다. 오름은 어머니의 품이요 풍요를 상징한다. 오름에 머무는 산신령은 노인으로 인식되면서 수호신적 상징성을 띤다. 어버이를 오름에 비겨 노래함은 이래저래 적절하다.

한량 없는 부모의 은공을 높깊은 산과 바다에 비함이 어찌 제주민뿐이라마는, 도민의 삶은 오름들과 잘 어우러졌으므로 노래하는 뜻도 더욱 절실해진 다. 또한 짐을 짊어지는 짐패나 질빵은 제주민의 팔의 연장이요 분신이다. 오

물을 등에 질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와 함께 이를 짊어질 짐패를 즐겨 동원했음은 제주민들 특유의 운반법에서 온다. 도민들, 특히 여인들은 마실 물을 허벅에 길어서 등으로 져 나르고 이런저런 짐을 등에 져 나르는 게 중요한 일과다.

〈父母恩重經〉에도 드러난 대로 땅이나 하늘과 같은 부모의 은혜(慈母象於地, 嚴父配於天)를 오름의 높이와 부피에 비유했고, 아버이의 목숨의 한계를 짐패의 길이로써 비겨 봤다. 일상 쳐다보고 오르내리는 오름과 거의 날마다 사용하는 짐패는 제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하다는 점은 노래의 효과를 드높인다. 노래하는 뜻이 이처럼 일상 보고 만지는 사물로써 비유될 때면 쉬 몸에 와 닿아서 이해하기가 한결 빠르고 절실하게 느껴진다.

‘濟州三多’, 곧 돌과 여인과 바람이 골고루 등장하는 다음 사설도 과연 일품이다.

② 오름에돌광	지세어명은
등글어대기당도	살올메난다
놈의첩광	소나무바람은
소린나도	살올메웃다
버럭버럭	살마꽃은
하를피면	웃어나진다

(앞의 책, 557번의 자료)

〈풀이〉 오름에 돌과	지세어명은
굴러 다니다가도	살 도리 난다.
남의 첩과	소나무 바람은
소린 나도	살 도리 없다
번듯번듯	반하꽃은
하루 피어	없어진다

본처와 소실(첩)의 대비를 돌과 바람에 잘 비유했다. 오름은 삼백 수십에 이르는 제주도의 기생화산이며, ‘지세어명’이란 정절을 잘 지키면서 집안일을 착실히 다스리는 본처를 가리킨다. 오름 등성이에 지천으로 구르는 돌에 본처의 속성을 찾았고, 남의 소실은 소나무에 부딪쳐 스산하게 부는 바람과 같다는 것.

현속하고도 묵묵히 지내는 본처는 오름 등성이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돌처럼

외롭고 쓸쓸년스럽게 굴러다니다가도 세월이 가면 안정된 자리가 주어지겠지 마는, 남의 소실이란 소나무에 부딪치며 썩썩 요란스럽기만 한 바람마냥 걸으로는 야단스럽고 화려한데, 하등의 실속도 없이 살 도리라곤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민들은 걸모습보다는 실속을 중시한다. 온갖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대로 부딪혀 시달리면서도 바장이거나 앙살부리지 않고 그저 말 없이 제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본처는 마치 어느 오름 비탈에 자리하여 술한 세월 모진 비바람에도 아무런 불평 없이 견뎌내는 돌처럼 첩첩 쌓인 고난을 꿰뚫어 나가면 언젠가는 안정될 고비가 돌아오겠지마는, 남의 소실이란 걸으로는 화사해도 허허롭기만 한 것이어서 거깃부리의 요란스럽기만 한 바람처럼 안정된 삶의 길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요컨대 돌과 본처는 실속을 택하며, 바람과 소실은 외양을 중시한다.

걸모습만 화사한 바람과 소실은 하루쯤 번듯이 피었다가 이내 시들어 버리는 반하꽃이 곁들여 강조됨으로써 그 속성이 선명해진다.

제주민은 예로부터 돌의 철학을 몸에 밴 채 살아간다. 돌은 탄탄해서 견고한 것이요, 늘 한결같아서 불변성을 띤다. 수호의 힘을 지닌 돌은 안식처를 상징한다. 돌과 바위는 대지에서 신선과 같은 존재로서 영원성과 초월성을 표상한다. 돌(바위)의 생명력은 묵묵무언이면서도 영원하고 굳센 의지와 불변의 기개를 표상한다. 온갖 고난을 감수하다가도 영원히 살 만한 길이 트이는 본처는 돌(바위)처럼 불변의 위상을 지닌다.

따라서 제주민은 실속 없이 걸로만 화려한 바람이나 소실의 생리를 거부한다. 바람은 자연의 싱그러운 기운을 불러일으키며 야성적이고 충동적인 힘을 상징한다. 바람은 파도와 같아서 정처없고, 고난과 위기를 표상한다. 바람은 또한 흥분과 도취 및 허무, 거짓, 파괴, 폭력 등 부정적 상징성을 지닌다. 바람은 약동하는 삶을 상징하면서도 가변적(可變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상하다. 이러한 바람의 생리는 뻥뻥 꽃피었다가도 불안정하고 굴곡이 많은 소실의 속성과 상통된다.

이 민요의 사설은 그 꾸밈도 정연하다. 2행 1장 단위의 대비를 알뜰히 이룩했다. 1·2행의 대구로서 3·4행이 맞섰으며, 5·6행은 3·4행을 점층적으로 강조하면서 원숙하게 마무리한다.

운율도 잘 구사되었다. '돌[○]광 ~ 첩[○]광', '지[○]세어[○]멍은 ~ '소[○]낭과[○]부[○]름은 ~ '살

마곳은', '둥글어댕기당도~소린나도', '살을메난다'~'살을메었다' 등둥운의 작용이 한 줄을 사이에 두고 정연하다. 제주 언어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지만, 더욱이나 'O'과 'L'이 연거푸 이어짐으로써 미끄러운 활음조로 이루어져서 노래가 한결 아름답다.

어차피 혼한 돌과 바람은 제주민의 실정이다. 돌의 생리는 제주민의 삶의 의지다. 메마른 땅에서 짓곳은 역사에 시달리면서도 돌처럼 우직하게 제 자리에 충실하면서 역경을 개척해 나가는 탄탄한 생활관을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까무러치지 않고 굳건히 살아 온다.

따라서 이 사설은 단순히 돌이나 본처의 생리를 바람과 소실에 대비하면서 밝히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오랜 세월 이 섬을 지켜 오는 탄탄하고 우직한 도민의 삶의 방법과 연결된다. 오름 비탈에서 구르다가도 언젠가는 제 자리에 자리잡은 투미한 돌맹이의 안정감, 이는 본처의 소망일 뿐더러, 제주민의 삶의 방법이다. 오름에 놓인 돌맹이는 거센 비바람에 시달리면서도 말이 없고 겁도 불평도 없다. 보잘것없이 조출하고 투박하더라도 이는 돌맹이가 지니는 실정ियो, 그렇게 놓여 있기를 바라는 것이 돌맹이의 소망이며 도민의 소박한 꿈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돌도 길가나 들판에 아무렇게나 구르는 돌이 아니라, 오름에 놓인 돌ियो, 바람 또한 허공을 휘젓는 바람이라기보다 소나무에 부딪쳐우는 바람이다. 돌과 바람과 오름은 제주민과 밀착된다. 어디에든 지천으로 깔린 돌, 불쭉불쭉 솟은 오름과 소나무들, 이들은 일상 제주민과 더불어 숨쉬는 것들이요, 늘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노래의 뜻은 더욱 실감된다. 이 사설에는 공교롭거나 고급스런 기교가 없다. 일상적, 구체적인 사물로써 비유가 썩 적절할 뿐더러, 겉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제주민의 질박한 생활의식을 꾸밈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다른 문학성이 담겨 있다.

다음에는 자신의 굴곡 많은 세상살이를 미역의 생리에 적절하게 비유한 자료를 보기로 한다.

③ 설문어명	날설아울적
어느바당	메역국떡꼭
바람불적	절일적마다

강글리명 못사는구나
(앞의 책, 141번의 자료)

〈풀이〉 설은 어머니	날 서어 울적
어느 바다	미역국 먹고
바람 불 적	물결 일 적마다
흔들리며	못 사는구나

살기 버거울 만큼 고난에 부딪히는 자신의 불운의 연유를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로 치올라가서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는 이색적인 사설.

- ㉫ 바닷속에서 자라는 미역이 하고많은 날 거센 물결에 시달리 듯이, 자신도 미역처럼 벅찬 고난이 이어진다.
- ㉬ 이 고난의 이유를 관념적인 괄자 탓으로 돌리기보다 어머니 뱃속에서 서어올 때로 치올라가서 구체적으로 헤아려 본다.
- ㉭ 어머니는 상근해녀이므로 늘 미역을 캐었고 미역국을 일상 먹었으니, 자신 역시 어머니 뱃속에서 미역의 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 ㉮ 따라서, 미역이 술한 세월 줄곧 물결과 부딪치며 자라듯, 내 또한 미역을 닮아서 고난의 세월이 이어진다.
- ㉯ 미역은 거친 물결에 시달려야만 자랄 만큼 자란다. 자신도 미역처럼 부딪힌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갖은 풍파를 극복하며 역세게 살아간다.

자기자신의 운명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인 풀이를 한 게 아니라, 미역과 물결을 동원하면서 합리적 실증적 인과(因果)를 그렸다는 데 발상의 묘미가 있다. 말의 꾸밈새도 정연하다.

사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므로 이 사설에 드러나는 바다 물결 바람 미역 등은 늘 더불어 지내는 것이므로 도민들에게 너무 친숙하다. 친숙한 소재이므로 그 뜻도 이해하기에 빠르다. 바다에 관련된 소재들이므로 얼른 〈해녀노래〉처럼 보이기 쉽지만, 실은 〈맷돌노래〉다. 농어민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일상에 근거하면서 절묘한 작품을 낳았으니, 맷돌을 갈면서 이런 사설을 불러갈 때 자신의 실정이 잘 풀이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후련해진다. 여인들은 일상 몸으로 겪는 경험과 구체적 사물을 동원하면서 정연한 논리로써 자신의 사정과 실정을 풀이하는 영특한 슬기를 민요 사설에 기탁할 줄 안다. 도민들은 역세게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탄탄한 의지를 바닷물 속의 미역의 실정에 투영시키면서 일체화했다.

우리가 주목할 바는 물결에 사시사철 시달리면서도 미역은 현철민 하고 싱그럽게 자란다. 마찬가지로 제주민들은 갖은 고난에 시달리면서도 철통 같은 의지로 이겨나가는 삶의 방법에 통달했다. 제주민의 이러한 오달진 생존양식을 기발한 발상으로 절묘하게 그렸다는 데 이 사실의 문학성이 엿보인다.

민요 사설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휘를 기묘하게 구사함으로써 문학성이 돋보이는 경우도 보인다.

- | | |
|--------|-------|
| ④ 심방이사 | 신물러가난 |
| 신명뒤로 | 신살아온다 |
| 방에도사 | 신물러가난 |
| 놀레로사 | 신살아온다 |
- (앞의 책, 761번의 자료)

- | | |
|-----------|---------|
| 〈풀이〉 무당이야 | 신 물러가니 |
| 신명도로 | 신 살아 온다 |
| 방아도야 | 신 물러가니 |
| 노래로야 | 신 살아 온다 |

이 사설에서 주목되는 바는 '신물러가난', '신살아온다'의 '신'이다. '신나다'의 '신'으로서 표준어에는 독립되어 쓰이는 일이 드물다. 그런데 유달리 제주어에서는 '신'이 이 사설에서처럼 적절하게 구사되었다.

'신'의 사전적 해석은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어떤 일에 흥미와 열심이 생기어 으쓱해지는 기분을 뜻한다. "신이 나서 춤을 추다"와 같은 경우다. 마음에 꼭 차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신에 붙잡다'는 말도 있다. 예를 들면 "그 멧통의 마음에는 도냥씩 주는 것이 신에 붙지 아니하여 어찌면 그 집 재산을 통으로 먹어 볼꼬 하는 생각이 꿀떡 같으나……" (崔瓊植, 〈金剛門〉)처럼 쓰인다.

'신나다'는 말은 늘 쓰인다. 잘 알다시피 "흥이 일어나 기분이 아주 좋아지다"는 뜻. "신나게 떠들다" 같은 경우다. '신 물러가다'든가 '신 살아 오다'는 말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명뒤'(神明刀)란 심방(무당)들이 축수할 때에 손에 들어 춤추기도 하며 점도 치는 칼 비슷한 제구를 뜻한다.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며, '명뒤칼'이라고도 한다. 양손에 잡은 '신명뒤'를 돌려 가며 뱅뱅뱅 돌고 도람춤이라도 도취된 듯 추어가면 물러가던 신명 역시 되살아나면서 춤추는 심방이나 구경꾼이나 무아지경에 이를 만큼 흥분된 정취에 사로잡히게 된다. 언제나 신명나는 곳은 구경하

는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하다.

제주 고유의 절구인 '남방에' 역시 오랜 시간 짙어가면 지루해진다. 어깨도 다리도 뻐근해진다. 일이 고달프게만 여겨지고 짜증스럽기도 한다. 이럴 때 노래를 불러가면 신통하게도 감춰졌던 신명이 되살아나서 일이 즐겁고 흥이 난다. 이럴 때 방아 짙기와 더불어 부르는 민요는 불가사의한 힘이다. 이 사설에서 '신'은 가지런히 두운을 이룩함으로써 한결 절묘하다. 1·2행 "심방이 사 신물러가난 / 신뎡뒤로 신살아온다"에 맞서서 3·4행의 "방에도사 신물러가난 / 놀레로사 신살아온다"가 딱 짝맞추어졌다는 점도 놀랍고 노래하려는 뜻도 한결 강조된다.

제주 민요의 사설은 그 비유가 놀랍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문학성이 돋보인다. 다음의 비유 역시 간명하면서도 절실하게 몸에 와 닿는다.

⑤ 나전성은 누룩의전성
 누룩?찌 썩이명산다
 (앞의 책, 150번의 자료)

〈풀이〉 내 전생은 누룩의 전생
 누룩같이 썩이며 산다

제주민에게 주어진 고난의 무게가 워낙 육중하므로 자신의 전생으로 치울라 가서 팔자를 헤아려 본다. 심상치 않을 만큼 쓰라리고 괴로운 사람살이이므로 자신의 전생 역시 평범하지는 않았으리라 여긴다. 그래서 문득 썩고 발효하는 게 속성인 누룩을 끌어왔다.

누룩은 썩어야만 값어치가 발휘된다. 날이면 날마다 속을 썩이며 살아야 하는 게 내 일상이라면, 내 전생은 썩는 누룩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마저 품게 된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간장, 된장을 스스로 마련하느라 철이 되면 누룩을 빻았으므로 누구나마 누룩과는 친숙하다. 지난날 누룩을 외면한 백성들의 삶이 어디 있었을까. 누룩이 썩는 모습에 찻찻 쌓인 자신의 고난을 투영해 보는 제주 여인들이다.

집집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누룩으로써 알기 쉽게 직서적(直敍的)으로 비유했다는 데 오히려 묘미가 있다. 직서적이므로 이해하기에 어렵지도 않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내 실감이 난다.

직서적인 문법은 민요 사설의 성격이다. 세계 민요에 공통되는 민요 사설의

㉑ 너른바당 앞을재연
 혼질부질 들어가난
 저승질이 왓닥갓닥
 (앞의 책, 832번의 자료)

〈풀이〉 너른 바다 앞을 가늠하여
 한 길 두 길 들어가니
 저승길이 오락가락

제주 해녀들이 창망하고 드넓은 바다에 나서서 해산물을 캐느라 무자맥질하는 데 목숨을 거는 투지가 어련히 드러난다. 해녀동아리는 전복 소라 우뚝가 사리 등을 캐려고 질푸른 바다로 나간다. 물질할 해녀바다에 이르면 망시리가 달린 테왁을 물 위에 등실 띄워 두고 깊숙한 물속으로 무자맥질한다. 무자맥질하면서 눈 앞에 전개되는 물속의 깊이를 가늠해 본다. 한 길 두 길, 수직으로 깊이깊은 바닷속으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들어간다. 재래 해녀복 차림으로도 기량이 뛰어난 대상군해녀라면 열두 길 물속까지 들어간다. '앞을 재연'이라는 표현은 수직으로 물속에 자맥질할 때 눈앞에 전개되는 바다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피며 그 깊이를 짐작한다는 뜻.

실로 목숨을 건 싸움이다. 열 길, 열두 길까지 들어가서 우뚝통 살찐 전복은 눈에 띄는데도 이를 캐어 나오기에는 이미 숨이 가쁘다. '본조개' 같은 조개껍질을 놓고 표지해 두었다가 이내 다시 무자맥질해서 캐기도 한다. 빗창을 찌르고 억지로 캐어내려다가는, 가다가 숨이 막혀서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저승질이 왓닥갓닥"한다는 표현은 그저 노래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저승질이 오락가락하는 절박한 사정을 그저 간명하게 직설적으로 "저승질이 왓닥갓닥"이라는 말로 써 할 말을 다했다는 데 색다른 묘미가 있다.

〈해녀노래〉의 사실은 노래하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실 꼬트머리를 의문형으로 끝맺는 반어적(反語的) 표현이 흔하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런 문법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한결 선명해지고 불러가는 데 역동성도 띠게 된다.

㉒ 정든님이사 농을준덜
 요네착사 농주리아
 (같은 책, 877번의 자료)

〈풀이〉 정든 님이야 남을 준들
 요 노 짝이야 남을 주라

요컨대 “요네착사 놈주리야”에서처럼 서술형보다 의문형을 씀으로서 그 뜻을 충분히 강조했다. 여성의 생명인 정든 님에게 대비시키면서까지 노를 짓는 기백이야 무슨 일보다도 남에게 뒤지겠느냐고 단호하게 단정한다. 노를 짓기가 동아리와 더불어 힘차게 치러야 하는 역동적인 일이므로 이처럼 반문하는 형태도 특히 〈해녀노래〉에는 흔히 드러나는 줄 안다.

제주 민요의 사설을 유심히 살피다가 보면, 말의 연상작용도 예사롭지 않게 작용되어 기발한 데가 드러난다. 서울은 서러운 곳이라고 ‘서월’에서 ‘설리’를 연상했음은 놀랍고도 신통하다.

⑨ 서월서월 어떻게서월
 한술밥을 열놈이먹어
 설리사난 서월이라라
 (앞의 책, 694번의 자료)

〈풀이〉 서울 서울 어떤 게 서울
 한 술 밥을 열 놈이 먹어
 서럽게 사니 서울이더라

제주민이 서울에 대한 예전의 인식은 오늘날과 달랐다. 서울을 단지 지역적인 서울로만 인식하지 않고, 온갖 부귀와 권세의 상징으로 보았었다. 역사적으로 경래관(京來官)의 수탈과 횡포에 시달리었을 뿐더러, 서울에 나가서 벼슬하기는 아예 바랄 수 없었고, 밤낮으로 일에 시달려도 먹고 살기가 버거웠기 때문이다.

권세와 부귀를 마다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온갖 고난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는 제주민들로서는 특히 권세와 부귀를 표상하는 서울이 지극한 선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무리 부러워한다 하더라도, 부러워하는 대상을 획득할 수 없을 때에는 현실을 합리화하기도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하다.

제주민들이 제주민답게 살아가는 길은 부딪히는 갖은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분수를 지키면서 모든 권세와 평행선적 관계를 이룩하는 것이다. 모든 호화로운 꿈과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면 그만이라는 자존

의 철학을 키운다.

서울 사람들일랑 서울 사람들나름으로 살아라. 권세가 당당한 사람들은 그들나름으로 살아도 좋다. 우리는 우리대로 남에게 기대지 않고 분수에 알맞게 열심히 살겠다는 것이다. 권세를 상징하는 서울이라고 해야 어렵고 서러운 곳. 한 술 밥을 열 놈이 나눠 먹을 만큼 어렵고 서러운 곳이므로 '서울'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날 그날의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길만이 자신의 살길이라는 이 사실은 권세의 상징인 서울을 무조건 선망하는 태도에 췌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서울은 서러운 곳이라고 '설리'에서 '서월'을 절묘하게 연상했다.

다음엔 기특한 비유를 이룩한 동요 한 편을 보기로 한다. 호박이 탐스럽게 열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와 아들 딸 사이의 지극한 사랑을 노래한 다음 동요는 비유가 절묘해서 과연 주목할 만하다. 누구나 이 작품을 보며 감탄해 마지않을 뿐더러, 이를 소재로 시를 쓴 시인마저 있다.

⑩ 아방은	주둥이
어명은	입둥이
아들은	덩드렁둥이
딸은	꽃둥이

(앞의 책, 1364번의 자료)

〈풀이〉 아버지는	덩굴둥이
어머니는	잎둥이
아들은	덩드렁둥이
딸은	꽃둥이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다스한 사랑이 썩 알맞게 비유되면서 곱다랗게 흐른다. 이렇게 알뜰한 작품을 꾸미기란 창작하는 문인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다. 이 작품을 대할 때마다 농어민의 시인적 재질이 신통하게 여겨지기까지 한다.

'덩드렁'이란 뚝뚝하고 미끄러우며 둥글넓적하게 생긴, 짙을 두드리는 돌판이다. '덩드렁'에서 짙을 잘 두드려서 신을 삼거나 명석을 곁곤 한다. 어찌하여 여기에 '덩드렁'이 등장했을까. 호박·오이·수박 등을 비유하려는 것이다.

예전일수록 농촌의 집집마다 마당 구석에는 호박덩굴에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이 꽤 소담스러웠다. 이제도 마당 구석이나 밭 구석에 호박을 심곤

하지만, 예전처럼 흔하지는 않다. 전에는 독농가일수록 보리 짚가리 따위의 '눌'이 마당 좌우에 불쭙불쭙 솟아오르고, 그 위를 호박덩굴이 열기설기 뻗어 간다. 호박덩굴에는 호박꽃이 피고, 호박이 주렁주렁 열린다. 어린이들은 호박과는 늘 정답게 벗처럼 친숙할 뿐더러, 호박과 함께 자란다.

호박덩굴에 곱게 핀 호박꽃이나 탐스럽게 열린 호박은 호박꽃이나 호박만으로는 있을 수 없다. 호박꽃이 피어나고 호박이 열리려면 그 바탕이 되고 자양이 되는 덩굴과 이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덩굴이나 이파리는 그 자체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호박꽃을 피우고 호박을 열리게 해서 키우는 데 존재가치가 있다.

호박이나 호박꽃이 자식들이라면, 덩굴과 이파리는 아버지다. 아버지는 덩굴이요, 어머니는 이파리요, 아들은 호박, 딸은 호박꽃이라는 비유는 예사롭지 않게 절묘하다. 즐기는 생명의 근원이므로 집안살림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아버지를 잘 표상한다. 줄기가 튼튼해야만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을 뿐더러, 이파리와 호박꽃 및 호박을 싱그럽게 키워낼 수 있다. 이파리 역시 햇볕을 담백 받아들이면서 줄기의 구실을 돕고, 호박꽃과 호박을 알뜰하게 보살피므로 어머니의 위상과 잘 어울리는 비유.

줄기나 이파리는 요컨대 호박이나 호박꽃을 위하여 흠족할 만한 영양을 공급하며, 늘 따스하게 보호하므로 한 집안의 아버지의 구실과 아주 상통되는 셈이다. 또한, 줄기나 이파리는 호박이나 호박꽃을 잘 보살피고 돌볼 뿐더러, 어떠한 희생이라 하더라도 당연하게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한결 같이 자신을 뽐내거나 드러내지 않은 채 늘 묵묵해서 말이 없다. 자식을 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위상 그대로다. 사실 이렇게도 마땅하고 걸맞은 비유는 흔하지도 쉽지도 않다.

줄기와 이파리는 호박 호박꽃과 더불어 있어야 존재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없다. 말하자면, 아버지와 자식들처럼 서로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관계다. 알뜰하게 보호하고 보호를 받는, 온몸으로 헌신하고 무한한 혜택을 받는, 운명적인 관계다. 이 사설 한 편에는 다스리고 고귀한 사랑이 무르녹아 흐르는 분위기가 아름답게 넘친다.

대자연은 과연 인류의 스승이다. 인류는 대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영원히 변치않을 사랑과 靈性과 秩序를 배운다. 마당 구석에 호박이 열려 있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도 이처럼 인류 최고의 가치인 아버지사랑을 온 몸으로 터득한

다.

어린이들은 “아방은 줄둥이 / 어멍은 입둥이……”하고 거듭거듭 즐겁게 노래하는 사이에 높깊은 어버이사랑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자신의 삶 속으로 시나브로 이입시킨다.

말하자면 호박이 열려 있는 모습을 탐스럽게 내다보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저처럼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알뜰히 보살피면서 살아가야 하는 계당연한 도리임을 거듭 깨달으며 재확인한다. 사람들은 대자연 속에 감추어진 德性과 秩序를 겸허하게 배워 나가는 것이다. 이럴 때 사람은 대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어렸을 때부터 거듭거듭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어버이를 받드는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북돋워질 것이요, 대자연의 神性에서 사람살이의 바탕을 절실하게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도 절묘한 비유를 이룬 이 동요는 주목할 만하다.

(3)

우리는 이제까지 민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모든 구전문학과 더불어 엄연한 문학이요, 따라서 제주민요는 제주문학의 한 갈래라는 인식에서 논의를 전개해 왔다. 표현매체가 글이나 말이나 하는 문제는 접어놓고, 진행되는 작품의 문학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민요 사설은 그 나름의 문학적 값어치를 지닌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민요 역시 창작시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문학이라는 관점을 실례를 통하여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민요를 비롯한 구전문학 역시 문학으로 보자는 관점이 확연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요마적에는 민요를 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 역시 활성화됨으로써 민요 등 구전문학을 문학이 아니거나 문학 이전의 것으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어졌다. 농어민들이 일하면서 민요를 부를 때에는, 싱그러운 생산의 보람과 즐거운 예술적 체험을 동시에 누리는 셈이다.

제주문학의 한 갈래인 제주민요는 제주문학의 종가(宗家)로 볼 수도 있다. 어디에서든 민요는 그 지역문학의 마루터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제주민

요는 워낙 풍부할 뿐더러, 그 사실의 문학성이 힘주어 강조할 만큼 빼어나다. 세계민요를 통틀어 섭렵하지 못한 지금의 세계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자그만 섬에서 이처럼 빼어난 사실이 쏟아진다는 사실은 사뭇 경이로운 일이다. 적어도 한국내에서는 제주민요의 사실처럼 출중한 예를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 까닭은 여러가지이겠지만, 제주민의 삶의 실정이 유다른 점도 중시해야 될 줄 안다. 생업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우수한 사실이 담긴 <맷돌노래>, <방아노래>, <해녀노래> 등이 유별나게 풍성하게 전승된다는 점도 중시해야 한다. 특히 <맷돌노래>나 <방아노래>의 사실에는 제주의 실정과 제주민의 삶의 모습 전반이 백과전서처럼 담겨진다. 사실의 문학성도 다른 민요보다 깊이 있고 두드러지게 출중하다. 사실로 볼 때면 <맷돌노래>나 <방아노래>는 과연 한국민요의 왕자격이다. 동작과 밀착되기는 하지만, 부름 기회가 많으므로 <해녀노래> 또한 그 다음으로 사실이 풍성하고 문학성도 짙다.

국내 다른 지역의 민요에 비한다 하더라도 제주민요 사실의 문학성은 인정할 만하다. 이를 분석, 입증하려면 제주민요 전반에 대한 총체적 입체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한국문학 가운데 제주민요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육중한 사실도 분명히 확인될 터인데, 이 글에서는 이런 면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여기에 이 글이 지니는 한계가 있다.

다만 <맷돌노래>, <방아노래> 사실에 치중하여 몇 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감상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문학적 우수성을 살펴 봤을 뿐이다. 그런대로 표현의 절묘함은 입증될 만하다. 가다가 한국문학 고전시가의 문학성에 대비하더라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낫다고도 볼 수 있는 사실들이 눈에 띈다.

제주민요 사실의 문학적 우수성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제주민요의 사실 전반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으므로 결론지어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제주민요의 사실에는 제주와 제주민의 삶을 뭉뚱그려 드러내면서 절묘한 표현으로 깊이 있는 뜻을 담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앞에서 민요 사실 열편쯤을 분석, 감상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는 대체로 확인되었다. 특히 비유의 우수성은 강조할 만하다. 비유하는 수법이 적절할 뿐더러, 영탄적 서술적인 표현을 탈피하고 구체적인 사물로써 형상화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몸 에 절실하게 와닿는다. 이는 세계민요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히 제주민요

에서 두드러지다.

또한 제주민요에서는 비유라든가 사설에 등장하는 어휘가 일상적 구체적인 것들이다. 위에서 예로 든 사설만 보더라도 얼마나 일상적이요 구체적이요 가시적(可視的)인 어휘들인가 함은 이내 짐작된다. 제주의 농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고 만지는 것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는 것들이다. 늘 더불어 지내는 사물들이므로 농어민들과는 워낙 친숙해서 노래하는 뜻을 이해하기도 쉽고 실감이 나는 셈이다.

민요 사설에는 어떠한 어휘들이 등장하는가. 예로 든 위의 사설에서 우선 살펴 보자.

어머니 · 지세어멍(분처) · 첩 · 여인 · 아버지 · 아들 · 딸 · 정든님 · 심방(무당) · 밥 · 오름(산) · 바다 · 물결 · 미역국 · 노(槽) · 길 · 저승길 · 바람 · 돌 · 소나무 · 살마꽃(반하꽃) · 호박 · 호박줄 · 호박잎 · 호박꽃 · 짐패(짐을 지는 밧줄) · 방아 · 누룩 · 신명도(神明刀) · 덩드렁(짚을 두드리는 돌판) · 서울

모두 제주 농어민들의 일상적인 사람살이와 직결되는 것들이다. 나날이 대하는 사람들이요, 바라보는 것들이요, 먹고 쓰는 것들이다. 일상생활과 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개념하고도 거리가 멀다. 이처럼 일상적 구체적 가시적인 사물을 민요 사설에 흔히 등장시킴으로써 민요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은 유별나게 긴장체계를 불러일으킨다. 민요 사설을 부르는 데도 한결 신명이 나고, 외우기도 쉽다. 순간순간 민요를 들으면서 사설의 뜻을 이내 이해하는 데도 어렵지 않다. 밭과 들판에서, 혹은 바다에서, 땀 흘리며 어기차게 일하는 어정쩡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떤 내용의 무슨 노래가 불려지는지 힘들지 않게 파악하게 된다. 의식을 치르거나, 물사람들과 흥겹게 놀면서 구성진 노래의 사설을 들을 때에도 일상적인 내용이므로 쉽게 이해되면서 마치 자신이 부르는 것처럼 얼른 공명을 불러일으킨다.

비슷한 뜻을 적절히 반복함으로써 점층적 강조를 이루고 있음도 자연스럽게 운의 작용도 적절한 대목이 드물지 않다. 가다가 직서적(直敘的)인 표현으로써 노래의 역동성을 살리기도 하고, 의문형 종결어미를 씀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기도 한다. 일상 쓰이지 않는 말을 사설에 등장시켜서 오묘한 뜻을 잘 드러내기도 하며, 어휘의 연상작용도 놀라운 대목이 드러난다.

요컨대, 제주민요의 사설은 제주문학의 소중한 한 갈래이면서 한국문학에서도 귀중한 자산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은 앞날의 과제로 남는다. 사설 전반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그 전모와 유다른 색깔이 어련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본격화될 때 제주문학 내지 한국문학의 지평도 훨씬 트이리라고 기대된다.